**디도서** 10/29/2019

**배경**: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(주후 62-67) 중에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을 방문하였을 때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어 교회 조직을 맡기었다. 그레데는 지중해에서 네번째로 큰 섬인데 신약 시대에 그곳의 도덕적 해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(1:12). 또한 이단들이 횡행하여 이들을 경계하고 복음의 진리를 잘 수호하고, 부도덕하고 게으른 신자들을 잘 가르치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낸 편지로 주후 63-65년 경에 기록된 편지이다. (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으로 분류됨)

**목적**: 디도에게 교회 사역의 권위를 부여하고 (1:5-9), 이단과 반대자들을 경고하는 것 (1:9-10, 3:10-11), 신앙과 행위에 관한 가르침 (2:1-3:9), 그리고 바울의 개인 계획을 알리려 함 (3:12).

**수신**: 디도(1:4)와 그레데 교회 (3:15). 디도는 (안디옥 사람으로 알려졌고) 바울을 통해 회심하였으며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준 제자였다. 갈 2:1-5, 고후 2:12-13; 7:6-7,13-14; 8:6-7,16-17,23, 딤후 4:10 참고.

**주제**: 교회의 조직적, 효율적 사역. 복음과 진리의 핵심 정리(2:11-14, 3:14-17)와 선행에 대한 강조 (1:8,16, 2:3,7,14, 3:1,8,14).

**개요**

1. 인사 (1:1-4)
2. 장로의 자격 (1:5-9)
3. 거짓 교사에 관한 경고 (1:10-16)
4. 교인 양육의 기준(2장)
5. 교인 양육 지침 (1-10)
6. 양육의 은혜 (11-14)
7. 디도의 의무 (15)
8. 실천의 기준 (3:1-8)
9. 시민의 의무 (1-2)
10. 선행의 책임 (3-8)
11. 오류와 이단에 대한 지침 (3:9-11)
12. 결론 (3:12-15)